총알 오는 순간 고개 돌려 살아…피 흘리면서도 주먹 불끈

트럼프 피격 세계가 충격

“정치 폭력 안돼” 전 세계가 규탄
미국 정치권도 자성 필요 목소리
트럼프 지지층 결집 강화될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대선 유세장에서 습격을 당했다. 총격범은 유세가 열린 펜실베이니아주에 사는 20세 남성으로 잠정 확인됐으며 미국 사법당국은 암살미수로 규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미국 정치권은 이번 총격을 ‘정치 폭력’으로 규정하고 규탄에 나섰고,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판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차트 보려고 고개 돌려**=주말인 이날 오후(현지시간) 유세 도중 총격으로 총알이 오른쪽 귀 윗부분이 관통되는 부상을 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찰나의 순간 고개를 돌려 더 큰 화를 면했던 것으로 유세 참석자 목격담을 통해 알려졌다.

이날 오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했던 버네사 애셔는 “유세가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의 연단에서 6열 떨어진 곳에 있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청중이 마주한 스크린에 투사된 차트들 쪽으로 두 손으로 제스처를 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미 NBC 방송에 전했다.

애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때(right in the nick of time) 차트 중 하나를 보기 위해 머리를 돌렸다”면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총알이 머리에 맞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격받았던 정치인들, 일제히 정치 폭력 규탄**=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에 과거 비슷한 테러의 대상이 됐던 미국 정치인들도 일제히 규탄에 나섰다.

2011년 지역구인 애리조나주 정치 행사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머리에 총상을 입은 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개브리엘 기퍼즈 전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치적 폭력은 끔찍하다. 나는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남편이 테러 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도 “정치 폭력의 피해자가 된 가족을 둔 사람으로서 이런 종류의 정치 폭력이 우리 사회에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전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3개월 남은 대선판 요동칠 듯**=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국면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이자 유력한 대선 후보가 공개 유세 도중 암살 시도로 의심되는 총격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태 속에 피격 이전과 이후를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정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아직 총격을 일으킨 범인과 배후가 규명되지 않아 사건의 전모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외부 세력이 개입됐을 경우 파장은 더 크겠지만 미국인에 의한 내부의 정치테러일 경우에도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서로를 향해 도를 넘은 비난을 퍼부어 온 증오와 분열의 정치가 극단으로 치달으며 이 같은 사태까지 발생했다는 비판론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벌써 미국 정치권 전체에 근본적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과 관련한 사실들을 실시간 속보로 전달하면서 이번 사건이 장기적으로 대선 지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 분석이나 언급을 자제하는 상황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정치 테러 직후 지지층 결집 현상이 두드러진 만큼 가뜩이나 팬덤이 두꺼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지지층 결집은 한층 확연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귀에 총알이 관통해 피를 흘리는 와중에도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테러에 굴하지 않은 강한 인상을 남기고 단상에서 내려갔다.

고령 리스크 논란으로 후보직 사퇴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쟁관계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비교해 유권자들에게 강인한 지도자로서 면모를 과시할 수 있는 대목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미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의 이런 사진을 널리 알리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또 정치 테러에 대한 규탄이 테러의 희생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으로 흐를 경우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일부 부동층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로 기울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연합뉴스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 통과 8인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컷오프를 통과한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손을 들어 올리며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현희·한준호·강선우·정봉주·김민석·민형배·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 후보.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지사가 신안 하의도에 간 까닭은?

‘딥퍼플’ 생산 시설 상생협약
DJ 탄생 100주년 맞아 방문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최근 신안 등 광주·전남지역을 잇따라 찾는 등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2일 신안군 하의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고,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상생협약을 맺은 신안군의 퍼플섬도 찾았다.

신안군 방문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와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가시 없는 장미 ‘딥퍼플’(Deep Purple) 생산 기반시설을 마련해 관광 자원화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가 김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서거 15주기이기 때문에 평소 김대중 정신을 강조해 온 김 지사가 전남 방문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군을 포함해 김 지사가 취임 이후 업무협약과 5·18민주묘지 참배 등을 위해 광주·전남을 공식 방문한 횟수는 모두 9차례에 달한다.

이날 김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김 지사는 방명록에 “역사와 국민을 믿고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길을 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실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앞서 지난 5월 강진과 목포를 방문했을 때는 김대중 대통령의 모교인 옛 목포상고를 찾기도 했고, 지난 5월 광주 5·18 민주묘역을 경기도 공공기관장들과 참배한데 이어 지난 달에는 강진군을 청년창업인·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방문하는 등 호남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내비치고 있다.

또 김 지사가 최근 전국을 아우르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김 지사는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다.

오는 18일에는 충북 음성군청에서 열리는 ‘중부내륙철도 지선(감곡역~충북혁신도시·총 길이 31.7㎞)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반영을 위한 공동건의’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0일 경기연구원과 경기지역 여·야 국회의원 20명이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GTX 플러스 상생 협약식 및 토론회’에 참석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제 3법’(반도체특별법·RE100 3법·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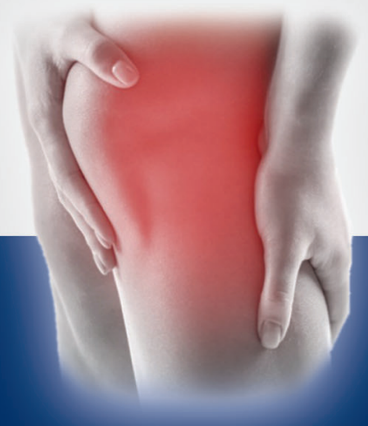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12일 오후 신안군 하의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김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를 추모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尹 “북한 탈출 해외동포 강제 북송 막기 외교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 책무이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폭정과 굶주림의 굴레에 가둬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닷새간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지난 12일 귀국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드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